



“딱딱한 삶 속에서 독서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완독이 아니라 단 한 페이지를 읽어도 뭔가 느낌이 있는 삶에 조금이라도 한 발 다가갈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함께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가는, 그런 부드러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조정훈 PD는 14일 서울 연남동의 북카페에서 열린 KBS 1TV ‘TV 책을보다-김창완과 책읽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수 김창완과 박복용 CP, 정승만 PD 등이 참석했다.

조 PD는 “책 프로그램 담당PD이지만, 책을 많이 읽고 탐닉하는 사람은 아니다”며 “돌아보면 오독이나 잘못된 산책이나 독서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이 최저 수준이다. 과연 우리의 일상, 삶이 책을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지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딱딱한 삶 속에서의 독서란 무엇인지

KBS 1TV ‘TV 책을보다-김창완과 책읽기’ 간담회에서

말하고 싶었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단 한 페이지라도 같이 읽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박 CP는 “예전에는 평론가, 저자, 전문가들이 와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일반사람들이 책을 논한다”며 “매주 6명 정도 섭외했다. 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활에 바쁜 사람도 있다. 어떤 책에 대한 평론가들의 서평이 다 다르듯 책을 읽는 느낌이 여섯 명 독자들 모두 다 다르다”고 전했다. “책이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한테, 그리고 라면가게 주인, 우리 모두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조 PD는 “앞으로 독자와 함께 하는 책읽기가 어떤 느낌인지 아직은 미지수

다. 이것이 슬로 리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형태의 책 읽기라고 할 수 있는지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방송에 어떤 책을 소개해서 이슈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독서를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 “책을 권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다. 바로 가수 김창완이 우리 청중 독자들에게 책을 강요하지 않고 부드러운 승결로 책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창완은 “사실 이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처럼 책 안 읽는 사람한테 왜 이런 것을 시키느냐’

그랬는데 어쩌면 ‘나에게도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안 늦었음에도 모른다. 세 판 진 이세돌 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요즘 진짜 반강제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 생각해주는 게 우리 가족, 친구, 형제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교수일 수도 있고, 소설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걸 책이 아니면 어떻게 느꼈을까 싶다.” 아울러 “책이 주는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책 하면 공부, 공부 하면 스트레스” 하는 연상작용을 끊어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참고서에 형광펜까지 쳐져서 나온다고 하더라. 결론을 위한 책이 아니고, 우리네 삶 같았으면 좋겠다. 물론 정보를 얻기 위한 책도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를 담고 싶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뮤지엄샵 재개장

월요일 제외 매일 운영

정읍시립박물관 내 뮤지엄샵이 재개장됐다.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지난달 박물관 1층 뮤지엄샵 사용 수익자가 전자 임찰을 통해 전분 손누비 공예가인 최숙정씨가 선정돼 앞으로 3년을 기한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뮤지엄샵 전통 장인의 수공예품들을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공간으로 꾸며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직접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이쁜한 공간에서 단아하게 앉아 수를 놓고 바느질 하는 최숙정 선생의 모습에서 옛 여인들의 단아하고 기품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땀 한 땀 실과 바늘로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는 우리 고유의 색으로 천연 염색을 한 것이다. 최 작가는 “창의적인 디자인과 은은한 멋을 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재현해내는 시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뮤지엄샵에서는 생활용품 도안을 직접 만들어보고, 제품을 완성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

끼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방공예를 활용한 천연염색을 기본으로 한 섬유공예 즉, 의류와 가방, 소품 제작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고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물관은 “뮤지엄샵 운영으로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 방문객 증대 효과와 활기찬 박물관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립 박물관 뮤지엄샵은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시립 박물관은 ‘보는 박물관이 아닌 찾아서 체험해보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국립국악원-현대지동차 국악경연대회 3년간 후원

국립국악원과 현대지동차그룹이 국악계 젊은 인재의 등용문인 국립국악원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를 3년 간 후원하는 협약을 했다. 14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해숙 국립국악원 원장과 박광식 현대지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지동차 그룹의 후원을 통해 국립국악원은 대회의 상급 인상, 수상자들의 해외문화 교류 확대 등에 힘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무주 최북미술관, 미술교실 운영

무주군은 최북미술관에서 ‘어린이 미술교실 5기 음악과 함께 하는 미술이야기’와 ‘성인미술교실 3기 한국화(채색화)교실’을 운영(관련 문의 063-320-5637)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미술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승자 강사와 최연희 강사가 바발디의 “사계”와 슈베르트의 “송어” 등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느낌 표현하기, 휴지심을 비롯한 움직이는 동물 만들기, 아크릴물감과 마블링 물감을 이용한 추상화 그리기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장우석 강사가 진행하는 성인미술교실(매주 토요일 10:30~12:30)에서는 한국화(채색화)를 배울 수 있으며 채색화에 대한 이론부터 선긋기와 기초채색, 자유화 그리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 양정은 학예사는 “최북미술관은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북여성작가회 기획전 등을 비롯해 11번의 전시회를, 미술과 문화교실 등 4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무주읍에 소재해 있는 최북미술관은 제2종 공립미술관(관람시간 09:00~18:00 / 월요일 휴무 / 관람비 무료)으로 과석도와 산수도 등 4점의 진품을 비롯해 110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세계소리축제 1위 ‘타악듀오 벳’ 프랑스로

2015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프린터어 1등에 빛나는 월드뮤직그룹 타악듀오 벳이 프랑스 바벨 메드 뮤직에 초청받았다. 소속사인 프로덕션 BUD에 따르면, 타악듀오벳은 17~19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이 행사의 쇼케이스 마지막날 공연한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총 31개팀이 선정됐다. 한국 팀으로는 타악듀오벳이 유일하다. 또 주불한국문화원의 초대로 바벨메드뮤직 쇼케이스 후 파리에서도 우리 음악을 선보인다. 자연을 소재로 한 음악을 들려주는 타악듀오벳은 무용 타악기인 장구와 유물 타악기인 양금을 통해 위로의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바벨메드뮤직은 마르세유 록 데 슈드에서 매년 3월에 열리는 지중해권의 대표적인 음악시장이자 2005년 지중해 지역의 음악교류를 위해 시작 지난해까지 11차례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은 약 30여 쇼케이스 무대와 컨퍼런스, 버스 전시 등이다. 마켓 기간 중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EFWMF)의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된다. 타악듀오벳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이후 단독콘서트를 열고 여러 미디어의 러브콜을 받는 등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양금연주자 겸 작곡가 윤은화, 장구연주자 겸 작곡가 김소라, 작곡가 임지희, 기획자 하늘빛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음반을 발표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15일>

<p>▷쥐띠 46년생: 태안이 밝게 비추니 하고자 하는 일에 길운이 따른다. 80년생: 모든 일은 악한 모자라는 듯 해아 뒤떨어지는 운이다. 72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64년생: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은 지금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p>	<p>▷소띠 4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운이 따른다. 81년생: 이성의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운이다. 7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큰것을 탐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 것이다. 65년생: 다른 사람과의 구설수와 시비수가 예상되는 운.</p>	<p>▷호랑이띠 50년생: 큰 움직임은 불리하니 자중하라. 83년생: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마무리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경쟁자로 인해 마음상감 일이 생긴다.</p>	<p>▷토끼띠 51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이라고 말리라도 실수가 따르는 운. 84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금전 거래나 투기. 75년생: 타인과의 시비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6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p>
<p>▷용띠 52년생: 임시 놀림만 할 일이 발생하니 동요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켜 침착한 심태로 유지하면 곧 지나갈 것이다. 85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6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범띠 53년생: 때로는 피곤하면서 조용한 한미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86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적 통화가 생기는 운이다. 6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p>	<p>▷말띠 54년생: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때다. 87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줘라.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잘 해결되는 운이다. 70년생: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마음 상산만한 일이 생긴다.</p>	<p>▷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이 도음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 적극적으로 일들을 진행하라. 7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는 난관이 생기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무리한 추진은 실패하고 때를 기다려라. 89년생: 바쁘지만 하고 바쁜인들의 이득은 얻기 어려우니 욕심을 버려라. 80년생: 처음에는 아꼐나니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p>	<p>▷닭띠 57년생: 모일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90년생: 뒷사람의 역이 출만하니 태만이 빛을 발하는 격이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작은 성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p>	<p>▷개띠 49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82년생: 먼저 손해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되고, 먼저 얻으면 후에 잃게 된다. 70년생: 특단특별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6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감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83년생: 문서 주고 받기에는 좋은 때이다.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때다. 마음 상치않이 생긴다. 6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니 큰것을 잃을 수 있다.</p>